

(설 화)

제 목 : 파살 능터 이야기

제 보 자 : 이 성 근 ( 남. 당 82 세 )

주 소 : 구리시 동구동 15

조사일시 : 1997. 11. 30. 이성근 가

내 용

그 안동 김씨에 후손 그래니깐 그 병자호란때 안동 김가 김자점이가 역적질을 했스니깐 그저 한 칠대됐지 칠대후손이 지관인데 거기다 잡었다구 근대 잡어 노큰 능을 맨들려구 모두 죄 해노큰 그 홍살문 세 울거 췌정 죄 해노쿠 풍물을 다 세노쿠 있는데 나라에서 그 묘자리 거 어따 잡었느냐 그래니깐 동구능에 승능자리에다 잡었대니깐 그 잡은 사람이 대간절 누구냐 그걸 물었거던요, 그래서 안동 김씨 김모시가 잡었다구 그래니깐 에이 그러믄 안돼 우리 그 사람허구 안됐다구 어서 파살시키구 음곡으루 탄 지관 한테다 우리허구 손이 읊는 사람을 지관을 데려다 능자릴 잡어라 그래가주군 거기 조씨내가 조말생이가 썼든데를 저 판대루 원기구 고종황제가 거기가 들어가 있어서요, 지끔요 근대 그계 산수자리가 조철 안태 거기두 거 왜그런고 하니 조말생이가 사백년은 내가 잇는데 사백년 후에는 나라에서 도루 날 자릴 빼습니다 그래니깐 그래구 또 여기다 산술쓰믄 우리가 국호가 남니다 그래니깐 아 예길 댜 왕에 정승이 씨가 있나 댜 무슨일이 있냐구 그래 서루 혼인이 댜잔아요, 나라 임금허구두 그집이서 인제 보국대감을 씨구 잘했스니깐 조가가 한양 조가가 그랬덴 말이 있어서요, 그계 그래 그 거기가 인조 말엽에 말이 만았잔아요, 이래나 저래나 묘자리가 조아두 그럭쿠 남에 자리 빼서 쓰는것두 그러쿠 인제 그 파살능 자린 언잔아요, 요력케 보믄 안대가 요력케 밧터서 음헌일이 생긴대 그래구 수가 이짜이 빠져서 나라가 망헌대 더 빨리 그래서 거기다 안했는데 결국은 망허긴 망했죠(제보자: 허--)그이 때 고만 고종때 망했잔아요, 그냥 일한 합병때는 바람에 -----